

##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박범이

생활수준의 향상, 생활양식 및 유통구조의 변화에 따른 과소비로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75%는 재생,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써 결국 우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75%의 돈을 버리는 것이다.

쓰레기 문제는 첫째, 쓰레기량의 최소화, 둘째, 철저한 분리수거, 셋째, 재생·재활용의 확대, 넷째, 소각·매립 등으로 완전처리가 되어야 하며, 이 4가지는 모두 잘 지켜져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쓰레기 재활용 및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못하여 쓰레기의 90%는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1978년 3월 쓰레기 매립을 시작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은 이제 해발 80m의 거대한 쓰레기산이 되어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되었고, 지난 해부터 김포매립지를 가동시키고 있으나 이곳 역시 분리수거가 안된 채 매립하거나 산업쓰레기마저 몰래 버리고 있어 주민들의 반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으면 우선 토양의 황폐화가 심각해진다. 쓰레기 중에는 땅속에서 자연 분해되지 않고 몇 백년동안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중금속을 유출시켜 수질이나 대기 등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도 있다.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어 꼭 선행되어야 할 실천사항이다. 또한, 자원의 낭비를 막는 의미로서도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해 알아보자.

### 1. 일회용품 및 비닐제품

국내에서는 해마다 종이컵 126억개, 우유곽 54억개, 컵라면 용기 1억8천개, 종이기저귀 50억개, 폴리에틸렌 청량음료병 15억개 정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비닐하우스용 비닐이 3만톤 정도 공급되고 그 중 1만톤 정도가 버려지고 있다.

이 비닐이 땅에 묻히면 공기와 물의 유통을 막아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바다나 강에 버려질 경우 양식도 망쳐지고 물풀도 자랄 수 없게 된다.

이들 비닐이나 플라스틱류 쓰레기는 썩지도 않으며 자연에서 분해되는데 300~500년이나 걸리는 반영구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다이옥신’이라는 유독성 물질이 생성, 방출되므로 일회용품이나 비닐제품은 ‘안쓰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비닐랩이나 알루미늄 호일 대신 뚜껑있는 그릇을 사용한다.

·물건을 구입할 때 스티로폼 포장은 사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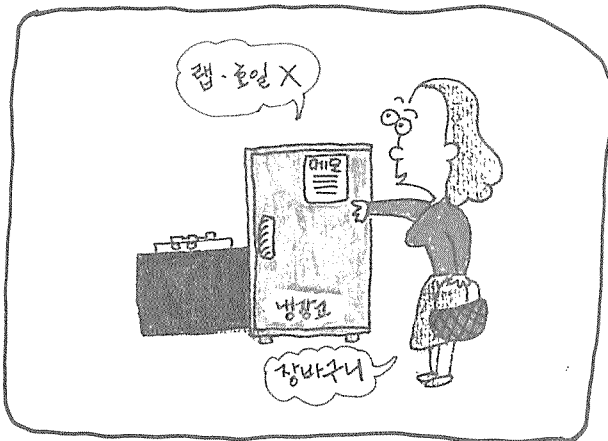
- 비닐 봉지는 모아서 가게에 갖다주자.
- 장바구니, 종이 봉지쓰기 운동을 하자.
- 일회용기저귀는 꼭 필요할 때만 쓰자.
- 빈 폴리에틸렌 음료수병은 마개부분을

잘라낸 뒤 곁에 그림을 그려 꽃병이나 접동사니 정리통으로 활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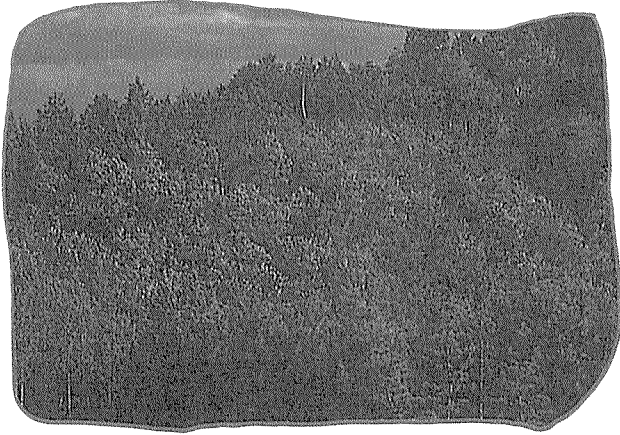
## 2. 일회용 건전지

손전등, 카메라, 시계, 라디오 등에 사용하는 작은 건전지에는 수은과 카드뮴 등 맹독성 중금속이 들어있다. 특히, 시계·계산기 등에 사용되는 은백색의 수은 건전지에는 최고 27%에 이르는 수은이 들어있는데,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폐건전지는 매립된 뒤에도 토양 속에 수은이나 카드뮴을 침투시키고 소각 시에는 수은과 카드뮴이 대기 중으로 증발된다.

또한,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카드뮴·동·아연·납·수은 등의 해로운 중금속들로서, 토양은 이러한 중금속류를 강력히 고정시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토양이 중금속을 함유한 물이나 대기에 장기간 접촉할 때면 중금속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것이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비닐랩이나 알루미늄 호일대신 뚜껑있는 그릇을 사용한다.



하루에  
전국에 보급되는  
우유곽은  
1천 200만개 정도이며  
매일 이 우유곽을  
만들기 위해  
20~30년생 나무  
8,000 그루가  
베어진다.

때문에 일단 오염된 토양에서는 중금속을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쓰레기에서 방출된 수은은 결국 먹이 사슬을 통해 우리 체내에 쌓이게 된다.

- 충전식 건전지를 사용하자. 충전식 건전지에도 카드뮴이 들어있지만, 일회용 건전지보다는 훨씬 오래 쓸 수 있다.

- 폐건전지는 산 곳에 다시 보내어 그곳에서 모아진 건전지가 재활용될 수 있게 하자.

- 폐건전지는 모았다가 사회단체나 판매상의 수집함에 넣자.

- 이웃과 함께 폐건전지 수집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 하자. 이것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나 노인정 지원금 등으로 활용하자.

### 3. 우유곽

우유곽은 100%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전량 수입하는 양질의 종이로, 비닐막을 제거한 후 고급 화장지로 재활용된다.

하루에 전국에 보급되는 우유곽은 1천 200만개 정도이며 매일 이 우유곽을 만들기 위해 20~30년생 나무 8,000그루가 베어진다.

- 우유곽은 깨끗이 씻어 말려 분리수거하거나, 재생 휴지로 바꾸어 쓰자.

- 깨끗이 씻어 말려 양말, 속옷 등을 넣거나 어린이 신발보관함으로 활용하자.

### 4. 폐지

우리나라 종이 원료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폐지의 종류는 폐신문지, 폐골판지, 기타 폐지인데, 특히 골판지 상자가 많다. 필포용 원목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폐지를 제1원료로 재생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고도의 정보·통신 사회가 되면서 우편물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다. 우편물을 보낸 곳으로 다시 편지를 써서 잡동사니 우편

물이 배달되지 않도록 한다.

- 배달된 우편물 중 봉투도 비닐창을 떼어 내고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 한다.
- 종이는 반드시 양면을 쓰며 재생용지를 쓰도록 하자.

## 5. 천 옷

안 입는 옷은 버리기 전에 줄이거나 늘이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지 살펴본다.

· 바자회 등을 통해 이웃과 교환하거나 자선 단체에 기증하자.

· 한복치마로 방석만들기-안입는 한복치마를 60×60cm 크기로 2개 잘라 3면을 잇고 한 면에는 지퍼를 단다. 가운데에 스펀지나 솜을 넣으면 화사한 방석이 된다.

· 스타킹으로 욕탕 발판 만들기-옷 쓰게 된 스타킹을 모아 3갈래 머리뜨기 방식으로 길게 꼰 다음 원형이나 마름모형으로 또아리를 튼다. 또아리 중심원 사이를 실로 묶어 고정시키거나 코바늘로 막짜기를 한 다음 끝부분을 매끄럽게 다듬으면 부드러운 욕탕 발판이 된다.

## 6.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캔 1개를 재생함으로써 절약되는 에너지로 3시간 동안 TV를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알루미늄 재생은, 알루미늄 생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95% 가량 줄일 수 있으면 재생한 알루미늄으로 캔을 다시 만들

알루미늄 캔  
1개를  
재생함으로써  
절약되는  
에너지로  
3시간동안 TV를  
시청할 수 있다.

때 드는 에너지는 새로운 알루미늄으로 만들 때 드는 에너지의 10%에 불과하다.

· 빈 캔은 물에 행구어 납작하게 눌러 분리 수거한다.

## 7.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폐품

전자제품은 덩치도 크고 처리가 곤란한데, 폐냉장고의 경우 프레온 가스통을 떼어내고 이웃과 함께 쓰레기 수거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탁기나 쌀통 역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으며 1개 개조비용이 인건비, 페인트비 등 1만여원에 불과하므로 우리 동네의 환경 보존을 위해 매우 소중한 실천이라 할 수 있다. ☞

〈필자=여성민우회 노원·도봉지회원〉